

[나의 책 나의 학문]

국어학의 길을 걸어온 지 40년

장세경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내가 국어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때는 1946년경이었다. 중 1~2학년 무렵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께서(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서 조선어 연구회 창립 발기 위원이고 후에 조선어학회, 한글학회에서 활약하셨으며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고 장지영 박사이시다) 너의 형들은 다 진로가 정해졌는데 너는 아직 어리니 국어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다. 나는 달리 무엇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없던 터라(막연히 교육학자 또는 교육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김병제 선생의 《한글 맞춤법 강의》라는 책을 주시며 이것부터 공부하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일약 한글 맞춤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특별한 지도나 조언은 하지 않으셨다. 다음 해이면 대학 진학을 하게 된 6학년 때 나는 아버지가 계신 연희대(연세대)를 피하고 S대 국문과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나는 이듬해 1월에 군에 입대하여 54년 10월에야 제대를 하고 보니 어찌해야 할지 막연했다. 입시에 대비할 기간이 서너 달. 머리에 들었던 지식마저 비워 버

린 상태에서 아득하기만 하였다. 결국 S대를 포기하고, 내신제 비슷한 제도로 변환하고 계열별 모집을 시도한 연희대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 입학 후 2학년에 올라가면서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되었다. 당시 국문과 교수진은 김윤경 선생, 최현배 선생, 허웅 선생, 정병욱 선생, 권오돈 선생, 박영준 선생, 나의 아버지 등 노장과 신진 기예의 쟁쟁한 분들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는 김·최 두 선생님의 학문과 인격에 흠뻑 젖을 수 있었고 눈피 허웅 선생을 통해 국어학의 새로운 경향들을 접하게 되었다. 기술 언어학도 그때에 배운 이론이다. 특히 미국 학자 홀의 ‘Leave your language alone’(일본어로는 ‘기술언어학 입문’이라는 제목이다)은 무척 재미있었고 배운 바가 많았다. 그 다음 블룸필드(Bloomfield, 1933)의 ‘Language’, 나이다(Nida, 1949)의 ‘Morphology’, 파이크(Pike, 1947)의 ‘Phonemics’ 등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고 해리스(Harris)의 구조 언어학도 알게 되었다. 과거의 학교 문법 지식만 있었던 나로서는 새로운 경지에 눈뜨는 순간이었다. 램스테드(Ramstedt, 1939)의 ‘Korean Grammar’는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 와 본 적도 없는 외교관이 어떻게 우리말의 문법책을 만들었던 말인가? 계통론이나 비교 언어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 언어학이나 구조 언어학도 제대로 소화하고 우리말에 적용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변형 생성 이론까지 건너오게 되었다. 이쯤 되니 내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전공 분야를 정해야 하는데 음성·음운론 쪽에 흥미가 끌려 입천장 소리 되기(구개음화-내 석사논문의 제목이다)를 주로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하였다. 구개음화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전파되는지의 과정은 꽤 까다로우서 갈피 잡기가 힘들었다. 한자음의 구개음화까지 곁들이면 더 까다롭다.

64년 한양대학교 전임강사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국어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저서인 ‘이두사전’ 편찬에 참여하게 되면서 내

전공이 확정된 셈이다. ‘이두사전’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1948년 연희대 교수로 가시면서 본격화한 것은 틀림없다. 그때는 내가 어렸고 또 군대에 가 있었고 해서 아버지의 작업을 잘 몰랐고 도움도 드리지 못했다. 대학원을 마치고 한양대학교에 간 후 아버지는 마무리 단계에서 규장각 자료를 찾고자 하셨다. 그동안은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임진장초(壬辰狀草)’, ‘심양장계(瀋陽狀啓)’, ‘유서필지(儒胥必知)’, ‘이두편람(吏讀便覽)’ 등 연활자본(鉛活字本)으로 출간된 자료와 소장하신 몇 개의 자료에서 채집한 예를 카드로 만드셨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규장각에 가서 각종 등록(謄錄), 추안국안(推案鞫案) 등 실제 문헌 자료를 많이 뽑아 드렸다. 원고가 거의 완성되어 원고지에 청서하던 중 아버지는 노환에 시달려 작업이 잠시 중단되었고 만형의 뜻에 따라 그 원고가 내게 넘어온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체제는 제1편 이론편, 제2편 자료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자료편은 청서 중이었지만 이론편은 줄거리만 잡아 놓은 상태였다. 할 수 없이 그동안 발표한 내 이두 관계 논문을 기초로 해서 이론편을 대충 마무리하고 인쇄소에 넘겼다. 생전에 책이 나와야 되겠어서였다. 부지런히 서둘러 아마 3교 정도 교정이 된 때인 1976년 3월 15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교정지나마 가쇄 제본한 책을 영전에 바치게 되었으니 못내 죄송하고 아쉽기만 하였다.

그 후 고려시대 자료를 비롯하여 이두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었고 이두 이론서나 자료 분석서가 많이 출간되어 이두 사전의 증보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나 마음뿐이지 실행을 못 하고 준비만 하고 있다가 1998년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비로소 증보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선 이론편은 사전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빼기로 했다(출간 때는 그나마 이론서가 없었다). 그 다음 새 자료를 살살이 뒤져 예문을 더 확보하고 새 어구를 찾아냈다. 그리고 형태 분석이 가능한 것은 그 형태소들을 따로 떼어 올림말로 하고 종전의 이두서(나려이두(羅麗吏讀)), ‘이두휘편(吏讀彙編)’, ‘전율통보(典律通補)’, ‘유

서필지(儒胥必知) 등)의 이두 읽는 법도 다 찾아서 달아 놓았다. 올림말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앞서 이두사전 편찬을 도우면서 내 전공이 확정되었다 했는데, 처음에는 중세 국어·국어사 쪽에 치우쳐 공부해 왔으나 이두를 많이 접하면서 고대어에 관심이 끌리기 시작했다. 고대 국어의 자료는 한자를 빌려 쓴 것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삼국유사’에 나오는 ‘赫居世’와 ‘弗矩內’, ‘荒宗’과 ‘居柒夫’, ‘蒼宗’과 ‘異斯夫’의 대응은 대단히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고대 국어를 해독하고 자료화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복수명(複數名)이라고 믿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난관이 있었다. 우선 그 당시의 한자음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운학 공부를 시작했다. 너무나 방대하고 어렵기만 하였다. 여기서 또 크게 놀란 것은, 칼그렌(Karlgren)이라는 스웨덴의 음운학자의 업적이었다.(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본국인도 어려워하는 ‘切韻’의 그 당시 음을 복원한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 ‘切韻’이 수·당 시대라면 우리나라 삼국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절운(切韻)을 계승한 광운(廣韻)의 복원 음은 삼국시대 고유 명사 표기에 차용한 음과 거의 같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고유 명사를 해독하는 데 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우선 그 작업부터 시작했다. 수박 걸 핥기였지만 그런대로 마무리한 것이 ‘고대 차자 복수 인명 표기 연구(古代借字複數人名表記研究, 1990, 국학 자료원)’이다. 이것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영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내 땀에는 여러 해에 걸쳐 힘들인 것임엔 틀림없다.

이와 관련해서 1982년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다. 국어사에 관심이 있고 고대 국어 연구에 발을 디밀고 보니, 그래서 한자 차자 표기를 공부하다 보니 일본의 가나에 관심이 생겨 일본 가나 ‘만요슈(萬葉集)’의 표기 수단이라 하여 만요가나(萬葉仮名)라 부르고 있다)를 살펴보니 우리의 차자 표기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갔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에 약 50일 간 머물면서 자료를 보았는데 꽤 많은 것을 찾았다.

그리고 일본 상대어(上代語)의 대가인 고바야시(小林芳規) 선생을 만나 조연도 듣고 자료를 얻기도 하였다. 내 생각은 이랬다. 우리가 먼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법을 고안해 문학도 하고 고유 명사 표기도 하다가 백제,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가 글도 가르치고 문화를 일구어 낸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의 차자 표기와 일본의 만요가나와는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아직 확실하게 주장할 단계는 아니지만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든다. 우선 그들의 한자 사용 문헌 자료를 보면 한문의 일본문화(和化漢文), 설패가키(宣命書), 만요슈(萬葉集)처럼 단순 차용에서 선별 차용으로 바뀐 과정이 비슷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료 연대와 비교할 때 약 100년씩 차이가 난다. 또 만요슈의 경우 이른 시대의 작품에는 백제인의 것이 많고 대부분 고향을 그리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서기석의 문체 → 고유 명사 표기 → 이두문(금석문) → 신라 가요’의 단계를 거친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의 한자 차용 표기는 우리 백제인이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설패가키는 우리의 이두문과 아주 흡사하다.

또 한 가지 내가 꿈꾼 것은, 고대어 특히 백제어의 자료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일본 문헌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의 연구가 부실하고 일본 고대어에 약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얻지 못했으나 일본 고전물(日本書紀, 古事記, 萬葉集 등)을 주석한 일본 학자의 주석에 따르면 어원이 백제어라고 지적한 것이 적지 않다. 일본 학자 오노 스스무(大野晋)는 여기저기서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수백 개의 단어를 제시하였다. 아무튼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유능하고 일본어에도 능통한 학자들의 연구를 기대한다.

일본 가나와 관련해서 양국의 한자 차용 표기의 변천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한문 능력의 향상으로 우리말의 전면적 표기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사라지고 한문에도 한자로 토를 다는 정도로 쓰였으며 이두문은 그런 대로 공사문서로 고려 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많이 쓰인 반면, 일본은 한자의 획 일부를 따서 쓰는 가다가나와 초서체에서 만든 히라가나를 만들어

자기 고유 문자로 삼았는데 특히 훈가나(訓假名) 곧 한자의 뜻말로 읽는 가나가 주로 쓰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일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최현배 선생의 음성학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하루는 선생께서 두툼한 원고 봉치를 들고 들어오셔서 강의를 시작하셨다. 내용 인즉 광복 전 ‘한글갈’(1940)에 실었던 없어진 글자의 소리값의 상고 중 ‘-’의 소리값 상고에서 “‘-’의 소리값을 /ㅏ -/의 사잇소리이며 복판 홀소리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후 1940·1949년 이승녕 선생의 <音攷>에서 /ㅏ ㅏ/의 간음설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답변으로 쓰신 원고를 우선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다(이 논문은 ‘고친 한글갈’(1961)에 실렸다). 아직 초보인 우리에게는 경이롭기만 했고 점 하나가 저렇게 대단한가 하고 좀 기이하게 생각도 했다. 그러나 강의하시는 선생은 열정적이셨고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셨다. 학문하는 학자의 참 모습을 본 느낌이다.

또 한 가지, 우리 스승의 학문적 논쟁이 기억에 남는다. 흔히 의도법 어미로 알려져 있는 ‘-ㅏ/-ㅑ-’에 대하여 허용 선생은 1950년대만 해도 ‘가칭 삽입모음’이라고 하고 그 기능을 알 수 없으나 나오는 환경에 따라 여러 이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자세히 밝히셨다(정음사에서 발간한 용비어천가 주해에서). 그러나 그 후 곧 1958년 ‘삽입모음고(插入母音攷)’라는 제목으로 인칭 활용설과 대상 활용설을 발표하셨다. 그런데 이승녕 선생은 1959년과 1960년에 걸쳐 ‘-ㅏ/-ㅑ-’의 의도설을 재주장하였고 두 분은 6~7년에 걸쳐 10여 편의 논문을 주고받는 대접전을 벌였다. 결과는 반반인 것 같다. 개론서나 문법서에서 인칭 활용설과 대상 활용설을 인정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역시 나에게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학교 문법 통일 과동이었다. 애초에는 잡음씨[指定詞]와 존재사(存在詞)를 없애고 토씨[助詞]도 인정 안 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하기로 하여 새로운 검정을 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쓰이던 최현배 선생의 중등말본과 고등말본이 통과되지 못하였고, 김윤경·이승녕 선생의 문법 교과서도 탈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현배 선생이 고소하여 승소하였고 검인정을 다시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서술에 아직 애송이인 내가 사열위원(?)으로 위촉되어 탈락한 사람 중 다시 재심 신청한 책을 사열하게 되었는데 노대가의 책을 가지고 평가(물론 통일안에 맞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일이지만)하는 일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몸 둘 바를 몰랐다. 그 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검인정 때도 사열위원으로 뽑혀 그때는 많은 책을 읽어 내느라고 큰 곤욕을 치른 기억이 난다. 그 후 다시 검인정을 할 때에는 통일안이 다소 수정되었고 원로 교수들은 작고하셨거나 출원하지 않았다.

애는 썼으나 큰 성과 없이 학문의 길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후회도 많이 되고 아쉽기도 하나 교육자로서 후진을 기르는 데도 성의를 다하였고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또 내 아들(경현)이 국어학을 공부하고 있어 3대가 국어학을 공부한 셈이어서 그것도 자랑스럽다.